

암은 조기(早期) 발견 하면 낫는 병입니다.

건강관리 시리즈 제 2 집
「자궁암 이야기」를 내어
놓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암(癌)은 불치(不治)의
병으로 한번 걸리면 낫지
않고 죽는 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빨리 발견하여
거기에 알맞는 치료를
하면 낫는 병입니다.

특히 기혼여성들에게 많은 자궁암은 남성에
있어서의 위암과 같이 높아서 이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사례가 많은 현실입니다.
도회지 여성들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농·어
촌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병원과 가까이 할 기
회가 적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언제나 문호
를 널리 개방하여 여러분을 모시고 있어오니
연 1회의 정기적인 자궁암 검사를 하시도록
권장하는 바입니다.

자궁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낫는다는 것을 재
삼 명심하시고, 항상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화장 · 의학박사)

검사 안내

전달 매개 문명체의 발달 보급은
우리에게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정보 전달 외에 각종 질환에
대한 의학상식도 전달해주고 있어
웬만한 질병에 관한 예방지식과 증상,
발병후 예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많은 상식을 갖고 있게 되었다.

또한 암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의학 상식이 일반화되어 건강에 관
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아 가고 있다.

자궁암 자가 채취 에서 판독 통보 까지

김 숙 일

또 생활의 안정으로 수명이 연장
되고 인구 구조의 老龄化로 만성질
환환자가 증가 되고 있다. 또한 비
전염성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간질환에 대한 효
율적 예방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자궁암 중 대부분이
95% 이상의 발병율을 나타내는 자
궁경부암을 말하며 자궁암에 대한
상식은 발견 되면 생명을 구제받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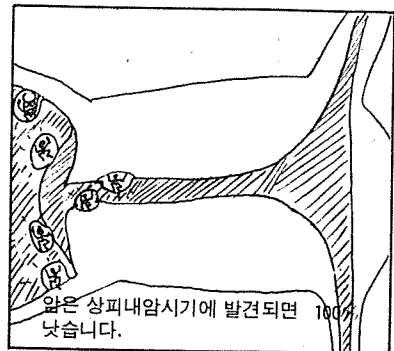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는 절망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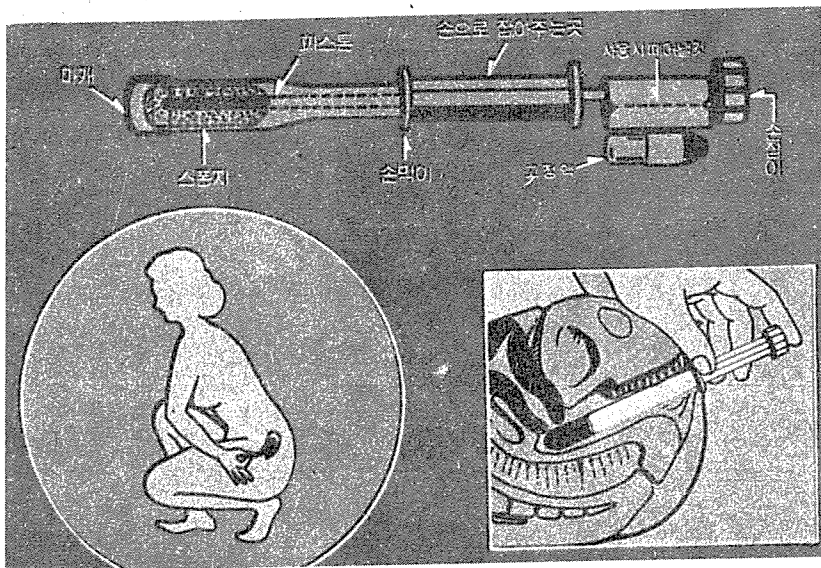
그것은 경부 상피에서 시작된 암을 조기발견 하지 못하여 자궁경부 외에 골반, 질, 직장, 방광으로 침윤 진행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처음 상피에 발생하는 O기 암의 경우, 외과적 수술로 100% 완치된다. 자궁경부에 국한된 1기 암일땐 80%, 자궁경부밖과 골반벽, 질하방 1/3 이상 침범 되지않은 2기 암일땐 60% 골반벽 혹은 질하방 1/3을 침윤한 3기암일땐 30%, 골반 밖으로 침윤되어 직장 또는 방광점막을 침범한 4기 암일땐 10%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기 때문에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적 검진이 필요하며 조기발견하여 암 병소를 제거만 한다면 생명에 지장 없이 암으로부터 생명을 구제받을 수 있는것이다. 일찌기 각종 암의 병소로부터 차연 탈락하는 암세포의

발견을 위한 연구가 184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었으며 19세기 말경에 이르러 세포학적 검사물의 채취, 표본의 고정 및 염색기술등이 개선되었고 1921~1943년 사이에 탈락 세포학의 창시자인 George N. Papanicolaou (1883. 희랍 태생)의 결정적인 연구로 체계화에 이르렀다.

당시 조직생검으로만 진단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병리의사에게 암의 세포학적 진단법이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1948년 미국 암 협회로 부터 파파니콜라우씨의 "질도말에 의한 자궁암" 논문에서 침윤 전 상태의 암 병소가 질도말에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인정받게되어 조기암 발견을 위해 파파니콜라우씨의 검사법이 이용되게 된 것이다. (PAP 염색법)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히 실시 되고있는 암 검사법이 이 검사





자궁암
자기채취
법(加藤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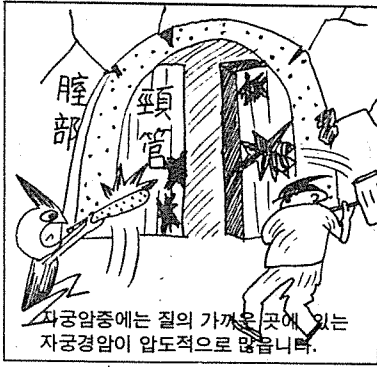
법의 연구로 자궁암으로 부터의 사망율을 감소 시킬수 있게되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부인암 검진만을 위한 제도가 확립 되어있지 않아 종합병원 단위의 産科를 찾아가야만 검진을 받을수 있는 산발적제도하에서 부인암 검진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하기에 1년에 한번씩 정기 검진을 받기란 그리 쉽지가 않았다.

너우기 무의촌지역인 농, 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들의 경우 일생을 두고 자궁암 검진을 단 1 회라도 받아보기란 그리쉽지 않다. 각 도청 소재지마다 전국 지부를 갖고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 부인들이 내손으로 손쉽게 검사물을 채취해 검진을 의뢰하는 「가또식」 자기채취 방법을 도입, 자궁암 검진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健協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궁암 자기채취기는 부인암 조기 발견,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외의 내방이나 의사 도움없이 자기 스스로 경부내 세포를 채취하고 의뢰하여 검사를 받을수있도록 1975년 일본의 병리의사인 가도씨에 의해 창안 개발된 특수 용기로서 이 자기 채취기를 이용해 일본에서도 자궁암 발견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채취기는 선단에 스폰지를 부착시킨 봉이 있고 또 적은 포리에틸렌 용기에 들어있는 고정액이 되는 50%의 에칠알콜 1ml가 들어있다.

본인이 세포를 채취하는 棒狀部分이 질내에 삽입되어 여기에 세포를 흡착시켜 꺼낸 다음 고정액을 적하시켜 고무마개를 끼워 이름과 주소를 기록 한후 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에 보내지게(우편도 가능) 되어있는 손쉽고 간편한 방법이다.

부담없이 검진 받을수 있도록 가격도 저렴하다. 어느 지역에서라도 검사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를 이용 하실수 있으며 집단별로 검사 신청을 하실경우 현지출장과 상담도 직접 나가고 있다.

협회에 보내진 검사물을 초자유리에 발라 PAP염색하여 파파니콜라우 1식 분류 방법에 따라 진단한다. PAP Class I~V 까지 분류가 되는데 이것이 곧 암 1기 2기를 나

타내는 것은 아니며 세포학적 분류인 것이다.

간혹 검사결과를 받고 암분류인것으로 아시고 당황해 찾아 오시고 문의해 오시는 분이 있는데 암분류는 아니며 PAP Class III 이상서부터 산부인과적 정밀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를 권해드리고있다.

본 협회에서 검경 진단을 받고 계신분은 국제 세포학회 회원이며 세포학의사이신 이인성 박사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스크린)를 위한 스크리너 양성을 위해 교육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가 된다. 이 사업을 시작한지 1년도 못되어 구체적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조기발견되어 치료 받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사업의 보람을 찾게 된다.

세계의 국가는 암 정복을 위해 국가사업으로 우표를 발행해 모아진 수익금을 암사업자금으로 써서 암 조기 발견 사업에 활발한 나라들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좋은 제도가 앞으로 생겨지길 바라며 모든 어머니들의 다정한 기관이 될수 있도록 자궁암 조기 발견 사업이 확장되었으면 싶다.

<필자=健協서울시지부 주임병리사>